

지역 소식통

김제시, 설 명절 축산물 이력제·위생 점검 추진

김제시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6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업체 또는 축산물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업체 등 식육포장처리업(3), 식육판매업(2), 식육축적판매업(2) 영업장 중 관내 25개소를 자체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명절축산물위생감시원(3명)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업장 위생 관리부터 이력 관리까지 △축산물 이력 정보(번호) 등 거짓 표시 여부, △영업장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여부 등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시 수거감사하고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제시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 취약 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공원 환경 정비 사업, 잔존시정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등 8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재선이 4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오는 2월 2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선발자는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제진흥과(063-540-33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삼천리길 설계 본격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22억4700만원 투입·걷는길 4개 노선 64km 정비

김제시는 28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삼천리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 구상'에 따라 김제를 잇는 노선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제 노선마다 각각 특색있는 테마를 정하고 거점마을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길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지정 명승지인 망해사와 만경강 나초, 새만금 등 김제의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현서 부시장은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삼천리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김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거점마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7년까지 도비 50% 포함 총사업비 22억4,700만원을 들여 관내 걷는길 4개 노선(64km) 구간을 정비하고 거점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현서 김제부시장,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지역 주요사업장 직접 돌며 현안 파악·대응책 모색

이현서 부시장이 지역 주요사업장을 직접 돌며 현안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일, 23일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까지 폭넓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부시장은 먼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활력타운 조성,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 △관광호텔 유치, △첨단기술과학단지 조성 사업 등 김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이룰 핵심 대규모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새만금 웹플러스터를 시작으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국립 새만금 수목원 배후도사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현장 방문을 점검하며, 새만금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23일 마지막 날에는 △도시재생사업,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용지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적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주요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민자치 1번지 완주' 위한 대토론회 성료

완주군의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완주만의 독자적 정체성 확립 방안 모색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8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완주의 독자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서 벗어나 완주군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완주군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결합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토론회에서는 완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5개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만경강의 생태적 정체성(황규관 시인) △고유 자원의 관광화(한범수 경 기대 교수) △재정 자립 가능성(하혜수 박사) △주민자치의 미래(하승우 박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졌다.



유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은 어느 한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 완주를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모델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군민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이날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완주군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결합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토론회에서는 완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5개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만경강의 생태적 정체성(황규관 시인) △고유 자원의 관광화(한범수 경 기대 교수) △재정 자립 가능성(하혜수 박사) △주민자치의 미래(하승우 박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종훈 완주 부군수 주재 현장점검 나서

상관저수지 둘레길·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관내 전 지역 대상

완주군이 주요 상생·쟁점·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종훈 부군수 주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및 군정 전반의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4개 사업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쟁점·현안사업 18개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점검에는 부군수와 소관 실·과·소장, 담당팀장, 해당 읍·면장이 함께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예정이다.

특히 공정 관리가 시급한 사업이나 주민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주요 현안사업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각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200도 돌파

김제시는 28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온도탑이 200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기부와 나눔

실천이 이어지며 목표를 훨씬 넘어선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투명한 운영,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캠페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

한편 모금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